

다산포럼



조 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교과서 검정과 국사 교과서

자는 교육부의 지시대로 수정될 교과서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뉴라이트 국사 교과서에는 역사 교과서로는 성립되지 어려운 근본적인 오류들이 눈에 띄었다.

원래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결합이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해석은 사관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나열은 결코 역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헌법적 가치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사관에 따라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므로 '사관으로 위장된 특정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거의 사실을 깨닫추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서술은 집필자들의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학계의 보편적 통의를 얻기 어려운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기도 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그 서술의 과정에서 현행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의 전통과 4·19 이념을 이어받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

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교회사관 교과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교과서의 서술 방향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생각해보더라도 이는 국사 교과서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저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의 저작이 특정 세력에 의해 오용될 경우에는 그 공동의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 그러한 만큼 저술 작업은 진지하고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이 교과서는 무한책임을 질 수도 없고, 오용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교회사 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우선 검정 통과를 스스로 포기하여 이를 철회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갖고 교과서 집필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의 교과서로는 자신들의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학자적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막아내고, 특정 정권권력의 시녀였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 국사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번 교과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검정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위원회가 통과시킨 교과서를 스스로가 다시 검정하여 재수정을 명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검정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검정의 책임을 직접 감당함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편찬위원회는 자신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내려야 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역사학자와 역사교육자들은 역사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이며, 모든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자들이다. 그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병천 논리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친구와 적으로 평가하는 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교과서다운 국사를 읽어볼 기회를 바란다.

社說

전남대 경쟁력 이렇게까지 추락해서야

전남대 학생들의 취업률이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인데 교수들의 연구역량도 타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 충격적이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최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의 취업률은 47.5%로, 전국 평균 취업률 52.39%보다 무려 4.89% 낮았으며 10개 국립대학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대 취업률은 최근 4년간 한 번도 50%를 넘지 못한 채 국립대학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학생들의 실력 저조나 지역적인 편견 등도 작용하고 있으나 대학 측이 산·관·학 등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소홀히 한 데 책임이 크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전체 교수 1174명 중

지난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1편도 없는 교수는 255명으로 21.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임교원 논문 게재 실적도 2008년 21%, 2009년 21%, 2010년 20%, 2011년 17%, 2012년 19%로 연구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남대 교수 1인당 논문 수 역시 0.62편으로, 부산대 0.94, 경북대 0.75, 전북대 0.63보다 뒤떨어졌다.

학생들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고, 교수들의 논문 발표 건수가 낮다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대는 이제 한풀달 태 의에는 달리 길이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 산·학 협력체제를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부하지 않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삼류대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막가는 패륜범죄, 도덕성 회복 시급하다

최근 광주시 서구에서 발생한 30대의 아버지 살해·유기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병을 앓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범죄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반인륜적 사고와 인명경시 풍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병리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친구에게 현책이라고 속인 뒤 함께 시신을 광주 모 대학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하지만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26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어머니와 불화를 겪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았다가 심하게 다투고 분을 참지못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와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오히려 꾸짖고, 뺨을 때리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아무리 가정불화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를 것이다. 우리가 수호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부모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뻔뻔해진 교육관에 사로잡혀 자식의 인성교육에 등한시하다 보니 이런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다. 최근 들어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반인륜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루빨리 이런 사회 병리현상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다.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도덕적 가치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학교, 가정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도덕적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집에서는 가족간 대화를 늘려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인식을 넓혀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NGO 칼럼



이 국 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11월1일 근로정신대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

지 어머니한테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던 모양이다. 어느 날부터 그는 밤에 어머니 곁에 잠 들면서도 한 손으로는 꼭 어머니 치마 저고리 한 쪽 끈을 손에 쥐고 잠에 들었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곁에는 어머니가 어제 저녁 입었던 치마저고리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아들이 잠에서 깨봐 조용히 그 자리에 치마저고리만 벗어놓은 것이다. 결국 그것이 어머니와 생애 마지막 작별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몇 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그리고 고이 잠자는 어린 아들을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옮겨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빈 치마 저고리만 부여잡고 있었던 그는 또 얼마나 허망했을까. 일제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이렇게 깊게 패어 있다. 올해는 해방 68년이다.

지난해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버렸다. 그리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에서 ‘신일 본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소송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그동안 일본에서의 소송을 연거푸 좌절해 왔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해방 68년 만에 새로운 명예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 배상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려야 했다. 신일본주금은 일본에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16년, 미쓰비시중공업은 무려 18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애초 원고 5명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오랜 소송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이 5명의 모든 원고가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학고대하며 기다리던 승소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남은 유족이 대신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니

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이들 기업이 대법원에 제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다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사건을 포함해 국내에서 제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사건의 당사자를 모두 합하면 고작 5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로 동원된 인원은 자기마저 10만 명이다.

이런 가운데,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우리 사법부 최종 판결이 오는 11월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5세. 일본 소송으로 시작된 정장 14년째에 이른 이 재판 역시, 세월의 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이 일곱 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68년이라는 세월도 부족해, 미쓰비시는 또다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내릴 것인가.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기고



이 정 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돌봄서비스기관 통합운영을 위한 제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서비스 만족도,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업의 정체성 문제 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 북구에 사는 A씨(33·여)는 5세 인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반 하원 후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할 시간대(1시간 당 5000원) 아이돌봄비를 구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그 시간 때 아이돌보미가 없어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새로 온 직장 인사를 포기함.

■ #구도심 지역의 A 서비스제공기관은 영아종일제 이용자 가정의 증가로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영아종일제 사업을 축소. 또한 홍보비 예산이 없어 전 직원들이 이용자 가정을 찾기 위해 거리 홍보나 기관 방문을 하며 사업을 추진. 이에 따른 업무 소진으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음. 이에 비해 인구밀집 지역인 B 서비스제공기관은 사업비와 운영비가 충분하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영아종일제 이용자를 적극 발굴해야 하나 단순한 전화 신청으로 연계가 쉬운 시간제에만 의존.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무관심한 서비스제공 기관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여의치 않다고 하나라 생각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비를 전용할 생각을 함.

위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 자치구별로 5개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돌봄사업의 정체성의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자는 서비스 수요에 상관없이 자치구별로 5개 서비스제공기관이 별도 운영되는 것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 운영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는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보미(현재 343명이 활동)가 없으나 다른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는 아이돌보미가 대기하고 있다. 통합운영시 이와 같은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을 일원화하면 예산,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A와 B의 서비스제공기관 사례에서와 같이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로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전체 사업비에서 운영비(주로 인건비와 행정부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에 육박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광역단위의 선진 ‘우수사업’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문화, 역사탐방 등의 학습연계

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34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복도우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담회, 역량강화 캠프, 소모임, 인터넷카페 운영 등의 광역단위 선진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자치구별로 서비스제공기관과 체결한 위탁기간의 상이성 문제에 대하여 통합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의 지역별 편차, 교통접근성, 운영 중단 기간 종사자들의 고용승계(현재 15명), 업무과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이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통합이 필요하다 하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다시 시구(始球)할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두 발로 잘 서 있다는 것을 한국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티타눔 다리의 천사’로 불린 에담 킹(한국명 오인호)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는 지난 2001년 4월 5일 두산과 해태의 개막경기가 열린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빠가 쿡고 다리가 썩는 선천적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입양된 9살 소년은 양다리 모두 티타눔 의족을 하다고 있었지만 마운드에서 칙칙하게 공을 던져 잔잔한 감동을 줬다. 현재 21살 대학생으로 당연히 통합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의 지역별 편차, 교통접근성, 운영 중단 기간 종사자들의 고용승계(현재 15명), 업무과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이직률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 전 리 선수(이명준)를 시구자로 뽑은 후 오رن발 을 축으로 온몸을 360도 회전한 뒤에 공을 던지는 독특한 시구 폼은 미국 메이

저리고 공식사이트에 “당신이 봤을 시구 중 가장 놀라운 것”으로 소개됐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3월 27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MBC와 삼성 개막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첫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 이후로 많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시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89년 4월 8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해태-빙그레 개막전에서 영화배우 강수연이 연예인 최초로 시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로 많은 연예인들의 시구는 야구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지난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 한국시리즈 3차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장을 찾아 ‘깜짝 시구’를 했다. 프로야구 개막 이후 전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시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7월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 전 리 선수(이명준)를 시구자로 뽑은 후 오رن발 을 축으로 온몸을 360도 회전한 뒤에 공을 던지는 독특한 시구 폼은 미국 메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沆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 2200-649 언론매체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9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알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